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1)

< 2015. 11. 14(토) 08:40 인문계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제시문 1>

인간은 개인의 자력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장군에게 좋은 삶과 중세 수녀 혹은 17세기 농부에게 좋은 삶은 동일하지 않다. 나는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 산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혹은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동업 조합 또는 저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씨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의 담지자로서 나는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하며 나의 삶에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제시문 2>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공동 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 사회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그와 같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 체제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3>

개인의 자아 정체성조차도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도덕적 유대에 의해 결합한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아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집단의 조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지니는 특징을 고려하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서구식 담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집단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풍조 역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제시문 4>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보면,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합니다. 진딧물만이 개미의 가축은 아닙니다. 개미는 꽤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릅니다. 개미가 이들을 기르는 방법도 사람과 유사합니다. 목동이 양떼를 몰고 나가듯이 아침이 되면 개미들은 기르는 곤충들을 몰고 올라가서 좋은 잎에다 풀어놓고 보호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다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반해 우리에게는 공존의 지혜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는 개미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진화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존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만 독불장군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남을 배려해야만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제시문 5>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고유한 삶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유한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율성이란,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선택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윤리적 존재인 인간 본연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논술시험 (인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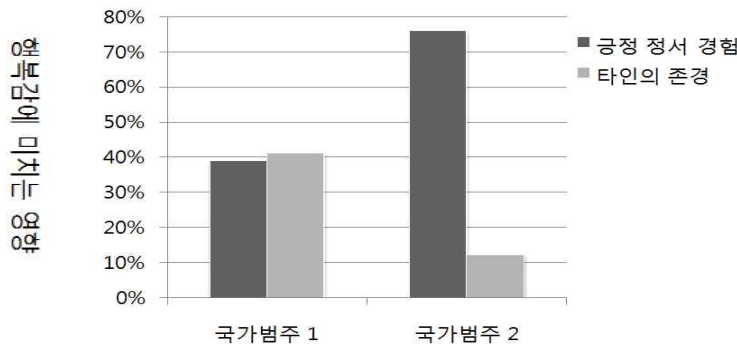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징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두 가지 연구 결과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25점)

<자료 1>

국가	목표 우선성	행복감
중국	2.00	16.43
인도네시아	2.20	21.89
덴마크	7.70	25.00
독일	7.35	23.27
한국	2.40	18.42
일본	4.30	20.20
호주	9.00	23.05
오스트리아	6.75	24.28
노르웨이	6.95	25.24
미국	9.55	23.64

- ※ 1. 목표 우선성: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의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해당함(1점~10점)
- 2. 행복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5점~35점)

<자료 2>



- ※ 1. 국가범주 1: 개인 목표보다 집단 목표를 중요시하는 나라들, 국가범주 2: 집단 목표보다 개인 목표를 중요시 하는 나라들
- 2. 긍정 정서 경험: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
- 3. 타인의 존경: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정도

[문제 3] <자료 3>은 A와 B 국가에서 1년간 두 가지 의료비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문제 1]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이 자료를 설명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을 택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25점)

<자료 3>

국가	정책	의료비 부담 비율 (%)	일인당 평균 병원 방문 횟수	일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단위: 원)	평균 사망률 (%)	사회전체의료비(단위: 조원)
A	가	35	10.1	35,350	3.3	6.1
	나	10	14.1	14,100	3.1	8.4
B	가	34	9.8	33,320	3.4	5.8
	나	11	9.9	10,890	3.2	6.1

- ※ 1. 의료비 부담 비율(%):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문제 4]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의 성과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보수를 개인 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제도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성과급 제도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5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2)

< 2015. 11. 14(토) 12:40 인문계 2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제시문 1>

모든 사회에는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는 사회적 사실들이 있다. 이를테면 개인이 형제, 배우자,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때 그 개인이나 그의 행동과 별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법과 관습 등에 의해 규정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개인의 정서에 맞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이다.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밖에 있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체계, 빛을 내거나 갇기 위한 금융 체계, 상업적인 관계를 위한 신용 도구,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행 등 사회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와 사고는 개인 외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강요되거나 강제되기도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에 동의할 때조차도 그 강제적인 힘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사실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제시문 2>

한 개인과 그 개인의 행위를 최소한의 단위인 '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행위 외의 모든 것은, '의미와는 무관한' 자연의 사건처럼, 유의미한 행위의 조건 내지 이 행위의 관련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에 불과하다. 개인은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이며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의식은 개인적인 것이다. 베버는 집합의식을 가설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적과 관련된 수단의 검토, 이 목적의 선택, 결과의 예측, 결정 그리고 실행의 결단을 포함하여 의미 관계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모두가 개인의 의지에 속한다.

<제시문 3>

분명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사람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없는 사람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거나 사람을 넘어선 존재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이 시간상으로는 국가에 앞서지만, 논리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 앞선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앞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두 명제의 증거는, 국가는 전체며 개인은 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고립되어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므로 전체 국가에 모두 같이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만이 스스로 만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타인과 더불어 정치적 공동체의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 즉 전체의 일부일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 사람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제시문 4>

로크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사회의 구속을 당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명·자유·재산 등의 자연권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이 정부에 권력을 일부 신탁하였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위임에 반하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며 그 목적에 반할 때에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5>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 유기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사회와 유기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사회는 성장하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이다. 둘째, 사회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회는 복잡해지고 점점 분화되는 경향을 띤다. 셋째, 구조가 분화되면서 기능도 더욱 세분화된다. 넷째, 각 부분은 상호의존적이다.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2] <자료 1>은 한 채용기관의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조합에 따른 채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지어 어떤 채용 패턴이 있는지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다른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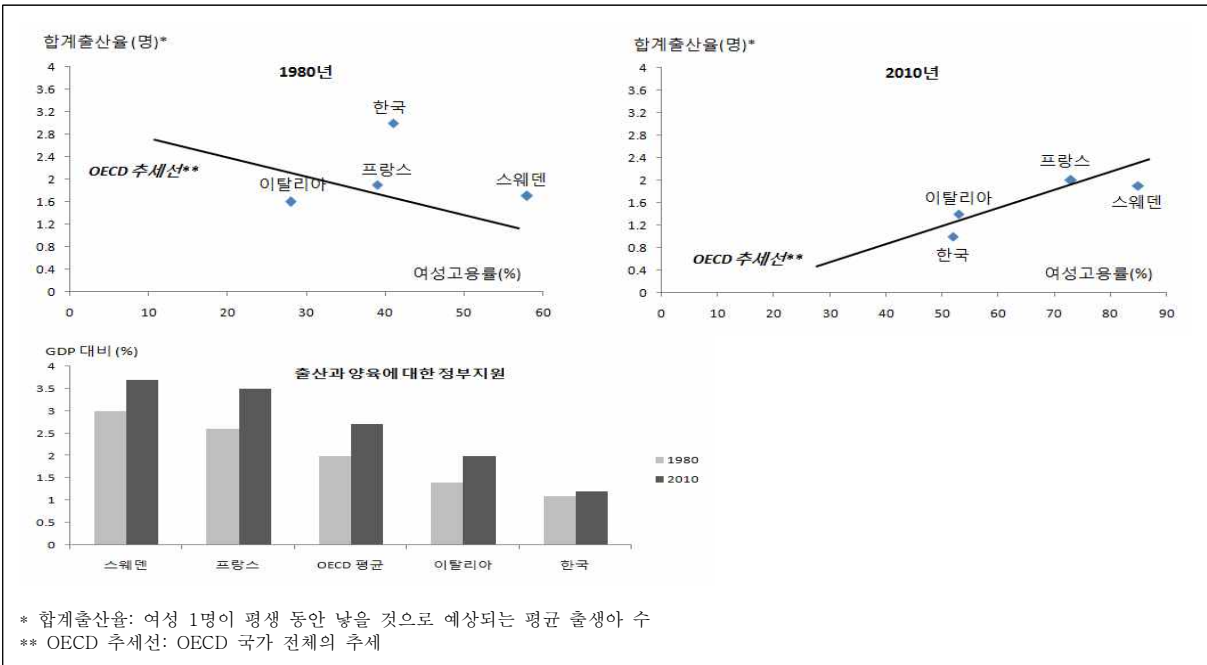
<자료 1>

면접관 출신학교	지원자 출신학교	지원자 출신학교		
		A 대학	B 대학	C 대학
A 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7	14	13
B 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2	18	11
C 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3	9	16

* 면접관과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 및 출신대학의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문제 3] <자료 2>를 해석하여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30점)

<자료 2>



[문제 4] [문제 1]의 한 입장을 근거로 <보기>에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 견해를 논술하고, 또 다른 입장을 근거로 그 정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논술하시오. (20점)

<보기>

최근 정부는 00지역에 위탁 시설을 갖춘, 제 2의 한류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긴 하나 일부 지역은 몇몇 개인의 사유지라는 점이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이 소유하던 땅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보상액을 주고 수용하였다. 그러자 K씨를 비롯한 토지소유주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 토지수용제도: 국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토지가 필요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3)

< 2015. 11. 14(토) 16:40 인문계 3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3)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제시문 1>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업적을 평가해 지지를 표시하거나 다른 정책결정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이다.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실행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게 되어 권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정권을 차지한 경우, 시민은 정책집행의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평가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그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시문 2>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서로 다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드러내어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공존의 지혜를 얻기도 한다. 갈등이 생길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의견이 계속해서 무시되면 대립과 갈등의 수준은 극대화될 수 있다.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뿐 아니라 소수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하는 합리적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여타의 물리적 힘이나 다른 강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실천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

<제시문 3>

대의 민주제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 비례 대표제는 한 사회 내 모든 하위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리자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광장에 모으는데 적합한 선거제도이다. 비례 대표제는 총 유효 투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비례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을 높여주며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다양한 대리자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다. 이처럼 비례 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책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표 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4>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회의론에 대해 토드 부크홀츠는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political invisible hand)’이 존재하므로 정치인의 개인적 동기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은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려 한다. 유권자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과 더불어 당선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 후보자가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투표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자신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다른 유권자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이처럼 정치가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가 바라는 것을 제시하고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길 바란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유권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결과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

<제시문 5>

비례 대표제에서는 소규모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도 쉽게 의석을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소수 정당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연립정부를 조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연립정부 구성 자체가 어려워 소수당 정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연립정부나 소수당 정부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다양한 정당 간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된다. 그 결과 정당 간의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실제로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혼합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반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

논술시험 (인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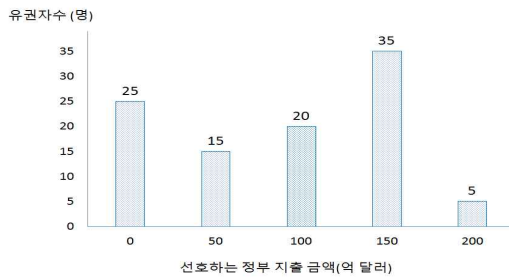
[문제 2] <보기>는 유권자 선호 분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이론의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25점)

<보기>

양당제 하의 다수결 방식에서는 유권자 선호 분포에서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유권자인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 대안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택된다는 이론이 있다.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한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이 존재하고, 정책 대안에 대한 유권자 100명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한다고 가정하자.

- <그림>에서 (i)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00억 달러이고,
 (ii)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은 90억 달러이며,
 (iii)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50억 달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인 100억 달러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이 선택된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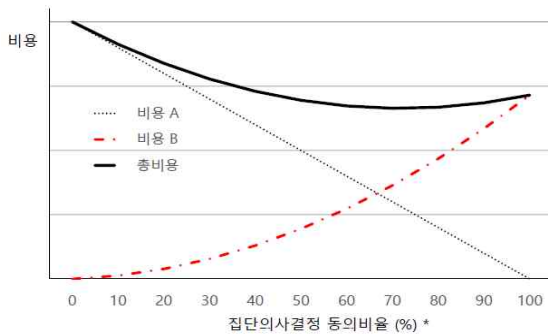


[문제 3] <보기>를 참고하여 <사례 1>과 <사례 2>를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를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하시오.(25점)

<보기>

집단의사를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수렴 방식은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 두 가지 비용, 즉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비용 A)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비용 B)을 초래한다. 사회구성원은 총비용(=비용 A+ 비용 B)을 최소화시키는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에 합의한다고 가정하자.

<사례 1>



<사례 2>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	비용 A	비용 B	총비용
0	260	0	260
20	224	20	244
40	198	45	243
60	149	110	259
80	86	205	291
100	0	330	330

*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로 만장일치제도에서는 100%임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활용하여, <보기>의 법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선택하여 논술하시오.(25점)

<보기>

A국 의회는 법안 통과를 놓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로 의회가 파행적 운영으로 가는 사태를 자주 겪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 소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전처럼 과반수 동의만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